



BAZZAR
2016. 1월호

HOT LIST
- 겨울의 민낯



겨울의 민낯

김홍학 화백에게 겨울은 '모든 걸 다 떨쳐내고 고요하고 엄숙한 계절'이다. 그는 "자연의 배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겨울 풍경에서 골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민낯 같은 당당함이 엿보인다"고 했다. 살아산에 살고 있는 작가는 문안 열어도 천지가 그림의 소색이고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고 말한다. 50년 세월 동안 처음으로 선보이는 김홍학의 <설경> 전시가 부산의 조현화랑에서 열린다. 만년설처럼 긴긴 세월 동안 켜켜이 쌓여온 작가의 미발표 그림과 신작들까지 총 40여 점의 작품이 공개된다. 2미터가 넘는 대형 작품부터 소반에 그려진 소품까지 그가 '가장 아름다운 절기'라고 생각한 겨울과 오롯이 마주할 수 있다. 12월 10일부터 2016년 2월 14일까지. **갤/ 김아름(프러렌스 에디터) 에디터/ 안동선**

격렬한 붓질의 축적과 사유

김홍주 화백의 개인전이 5년 만에 국제갤러리에서 열린다. 김 화백은 유행사조에 편승하지 않고 독립적인 회화적 실험을 통해 회화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왔다. 그의 작업방식은 '무엇을 그리는가 보다' '그리기'라는 행위와 이에 대한 접근 방식을 고민하여 발전했다. 이번에 전시되는 그의 신작들은 구체적인 형상이 더욱 희미해져 일부 작업들은 마치 벽지의 무늬와도 같은 모습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그의 방법은 여전히 무수한 붓질과 노동으로 축적되어 있다. 작가는 재력을 고갈시킬 정도의 장시간 '그리기' 행위를 통해 반복적인 세밀 붓질로 표현된 회화의 역설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12월 17일부터 2016년 1월 24일까지. **갤/ 김아름(프러렌스 에디터) 에디터/ 안동선**



HOT LIST
EXHIBITION, ART, MOVIE, MUSIC, BOOK, LIVING...

EXHIBITION

나에게로의 선물

스스로에게 무언가 선물하고 싶다면 (Gift Idea)가 열리는 지익스비전에 둘러보길. 젊은 작가들의 실험적인 선물을 전시 중이다. 가구 디자이너 김세나가 피로 만든 감렬한 색감과 부드러운 질감의 오브제. 아트 퍼니처 디자이너 황형신의 무엇이란 답이 없고 싶은 트레이는 가구와 소품을 예술적 시각으로 접근하게 한다. 한편 아트 퍼니처 디자이너 이원호는 패션 디자인에 도전했다. 니트 브랜드 미수아비호브(Msu A Barbe)와의 협업으로 실용성, 보온성, 참신성을 장착한 침프루트를 만들었다. 바라만 보던 작품의 영역을 뛰어넘어 만져도 보고, 입어도 보고 마침내 그것을 소유해볼 수 있는 기회다. 12월 16일부터 2월 29일까지.

갤/ 김아름(프러렌스 에디터) 에디터/ 안동선



이광호, 'KLMAB', 2015



황형신, 'Kerf Series Tray', 2015

김세나, 'R201512-3', 2015

ANU gashan, 'Kure Gallery, 2015' 588